

구토



나에게 손이 두 개 주어진 이유는 스스로 뱀을
내리치기 위함이다. 해안에 널린 돌들은 가지각색의
모양을 띠었고, 나는 그걸 억지워 구토를 해야. 잡지 못 할
것들과, 흘러가는 것들, 조각들은 분화되어 이물감이 느껴진다.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동 가능한가.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늘 말했지. 몸을 갈라서 내 심장을 세상에 보여 주고 싶어. 두려운 지방층을 가르고 색색 가리는 습이
몇몇 때, 그때 즈음 피를 토하겠지. 아니, 신들렸어. 나는 평생 생명체를 사해 못할 거야. 서열층에 걸린
사이치컬 화장실에 자주 방문하며 토악질을 해낼 거야.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고 뱀과 맞닿아 내 파열음. 내 시선을 고통이 아닌 빛이 되고 불렀다. 설열한
뱀을 붙잡고 물었다.

마찰은 열을 만들어내고 현재를 유지합니다.

여섯 혁명입니다.

이웃 투쟁입니다.

이웃 발전입니다.

이웃 살기입니다.

물고기 목을 질러 먹었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구토 <사르트르>

작품 설명

구토라는 책은 어지럽고 어려운 문체로 구성된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화자의 정서와 주장에 중점을 두었다. 화자는 자신의 존재와 평범하게 여기던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구토를 하였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정신 분열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글로 표현하였다.

또, 크레파스와 네임펜, 볼펜을 사용하여 크레파스의 거친 질감으로 불안과 분열하는 자신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너'는 분열된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히 하나로 교집합이 된 순간은 볼펜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었다.